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적극적 태도 제목 :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성경: 신명기 17장 14-20절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17:14-20)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적극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와 유사하지만, 더 강력한 뜻이 담겨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그 기초가 된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도 통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긍정적인 태도의 기초이다.

이 믿음은 죄와 저주와 불신과 불순종과 부정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는다. 그것이 곧 긍정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 속에 거짓이 들어있거나, 두려움이 들어있거나, 욕심이 들어있거나, 누추함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

-거짓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긍정하는 것 자체가 우선 부정적인 것이다.

-두려움이 들어있다면, 두렵기 때문에 친구 앞에서 웃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비굴한 태도가 될 것이다.

-욕심이 들어있다면? 소유한 주식이 계속 상한가를 치게 될 것이며, 빠지기 직전에 나는 팔아치울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것은 긍정이 아니라 탐욕스러움이다.

-누추함이 들어있다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너에게 에스맨이 되어야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너에게 노맨이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모든 것을 좋게만 보는 태도는 아니다. 무조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다.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 태도란 단순히 긍정적 가능성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가능성을 믿고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짜 긍정적인 태도란 결국 적극적인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적극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결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좌파나 우파를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좌파나 우파는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좌파나 우파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지는 말아야 한다. 비판하는 순간 당신은 좌파가 되든지, 우파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외줄타기를 잘하는 광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정확한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치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7장 앞 부분에는 제사장의 판단과 지도에 순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그 뜻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그 양심의 자유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바른 생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모든 생각의 올바름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말씀에 기초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란,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된다.

비록 사람들의 죄가 너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이기신다. 오직 예수가 마귀를 이기신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라고 경고 하셨다. 말씀만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왕들이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16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들은 자신의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위의 세가지를 범할 위험에 처한다. 세가지 모두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병마가 필요한데, 아내도 필요하고, 은금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왜일까?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지나치게 된다. 그러면 거짓말을 믿

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욕심스럽게 되고, 누추하게 된다. 그러는 순간 자신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살더라도 삶을 낭비한다. 그리고 그 삶은 돌이킬 수 없다.

32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5:32)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신17:20)

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1:7)

오늘날 우리나라는 온통 미혹의 영에 휩쓸려 있다. 정치인들은 극우와 극좌에 흔들리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혹의 영에게 휘둘리고 있다. 종교계도 땅굴과 전쟁의 공포에 흔들리고 있다. 큰 교회들은 비리논쟁에 휩싸여 있다.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카더라통신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민수기13장에는 모세에 관한 카더라통신이 소개되고 있다. 하나님은 모세편 이시다.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다. 카더라통신을 덮으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가십거리를 찾는 자들에게 물으신다. 너는 왜 내가 너를 위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느냐? 지도자를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로 뽑으실까? 하나님은 아무런 기준이 없으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뽑으신 지도자라도 가차없이 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를 오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것도 모두 계산이 있으시다. 쉽게 설명하자면 병든자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죽을때까지 일하게 할 것인가를 계산하신다.

또한 자신이 쌓은 죄의 결과로 그에게 개인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문제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다. 그를 판단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그것은 그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이다.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나는 그보다 덜한 비리를 저지를 것인가?
역사적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왕을 본 적이 있는가?

과연 내가 그 왕 자리에 앉으면 아무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고 통치자를 없애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 것인가?
비리가 발각 될 때마다 그를 처단하고 다시 새로운 자를 세울 것인가?

시대마다 가장 마땅한 자에게 정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왕이든 백성이든 스스로 개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겸손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극우든 극좌든 사용하셔서 정권을 처단하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치우쳐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은 지금 적극적인가? 당신의 긍정은 오염되어 있지 않는가? 거짓에, 두려움에, 욕심에, 또는 누추함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면 그것이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짐승의 우상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18절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13:11-18)